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에서 작가는 아무리 성격이 나쁘고 이기적인 아이도 부모와 주위 사람들의 칭찬으로 성격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격이 부정적이고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 200명에게 작은 일에서부터 칭찬을 하기 시작하니까 80%이상의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겼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이미 부모에게서 받은 DNA 중 성격을 형성하는 유전인자가 있으며 형제 사이에 성격이 다른 경우에도 부모의 서로 다른 유전인자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칭찬이 아이들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칭찬을 듣지 못하고 자란 이아들은 자신감이 없고 소심하며 교우 관계에서도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작은 일에도 칭찬을 받는 아이들은 자신감이 생기고 적극적으로 학교 일에 참여하며 친구들을 잘 사귀는 활발한 성격을 바뀐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에게만 칭찬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아이 앞에서 서로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보,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만든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는 칭찬을 주고받을 때 아이의 성격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